

톨카체프, 펜코프스키의 가치 있는 후계자

특별한 첩보 작전

배리 G. 로이든

편집자 주: 이 기밀 해제 기사는 부득이하게 기밀로 유지되는 작전국 파일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톨카체프의 이야기는 냉전 시대 정보 작전의 중요한 사례 연구이므로 최소한의 출처 인용을 통해 학자들과 대중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리 로이든은 합동군사정보대학에서 CIA 장교로 재직하면서 이 글을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그는 최근 40년 동안 CIA에서 근무한 후 은퇴했으며, 마지막으로 방첩부 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작전국 교육 시설에서 방첩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985년 9월 20일, 국제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소련 관영 통신사 타스 통신이 배포한 성명서에는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의 직원이라고 설명한 G. 톨카체프는 지난 6월 국방 기밀 자료를 미국에 넘기려다 체포된 인물입니다. 이후 뉴스에서는 톨카체프가 모스크바의 한 군사 항공 연구소의 전자 전문가로,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리 하워드에 의해 노출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985년 10월, *워싱턴 포스트*는 톨카체프를 "CIA의 가장 귀중한 인적 자산 중 하나"라고 묘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공개된 하워드 간첩 사건과 관련된 FBI 진술서에 따르면 톨카체프는 소련의 항공 전자 공학, 순항 미사일 및 기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1986년 톨카체프를 "반역죄"로 사형에 처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톨카체프와 그가 CIA에서 일한 것에 대한 추가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년 넘게 소련의 군사 연구 개발(R&D) 활동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가치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CIA에 제공한 용감하고 헌신적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KGB의 눈을 피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CIA 정보 작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작

1977년 1월, 모스크바의 전형적인 우울한 겨울 저녁, 현지 CIA 국장은 사무실을 나와 외교관들이 이용하는 인근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주유를 기다리는 동안 한 중년의 러시아인이 다가와 영어로 미국인이냐고 물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CIA 국장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러시아인은 접힌 종이를 자동차 시트에 올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CIA 국장은 자신의 차가 주유소에 있는 유일한 미국 번호판 차량이었으며, 그 남자가 미국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침착했고 자신의 접근 방식을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이 메모는 짧고 . 작성자는 "적절한 미국 관리"와 "엄격하게 기밀"로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중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공무원의 차 안이나 지하철 역 입구에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필자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주차된 차를 신호로 삼아 어떤 만남이 바람직한지를 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선택 가능한 두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IA와 이 "정보 자원자" 사이에 안전한 접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KGB는 소련에서 "댕글"(실제로는 KGB의 통제를 받는 외형상 정보 지원자)을 운영하는 패턴을 확립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지원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댕글은 CIA 요원을 추방하고 CIA의 작전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년 동안 CIA 최고의 요원 중 상당수는 정보 지원자였습니다. CIA의 가장 유명한 소련 요원 중 한 명인 소련군 정보국(GRU)의 올렉 펜코프스키 대령은 1960년 모스크바에서 CIA에 자원했습니다. 그 역시 서방 정보기관과 접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펜코프스키는 몇 달에 걸쳐 두 명의 미국인 학생, 영국인 사업가, 캐나다인 사업가에게 편지를 전달했고, 영국인 사업가 그레빌 윈을 이용해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과의 채널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1]

CIA는 펜코프스키를 영국과 공동으로 1년여 동안 운영했고, 그는 소련의 정치 및 군사 계획과 의도에 대한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소련의 미사일 배치 방법과 작전에 관한 자료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펜코프스키와의 실질적인 만남은 모두 소련 대표단과 함께 해외를 여행할 때를 이용해 서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톨카체프가 모스크바에서 CIA와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특히 민감한 . 모스크바 주재 CIA 요원들은 향후 몇 달 동안 몇 가지 작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들과 CIA 본부는 KGB의 공작에 휘말릴 가능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게다가 새로 선출된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가 양국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곧 소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며, 이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관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예비 자원자에 대한 신원 확인 데이터가 , 그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어려운 방첩(CI) 환경을 고려할 때 CIA 본부는 이 메모에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접근 방식

1977년 2월 3일, 이 자원봉사자는 다시 현지 CIA 국장에게 다가갔고, 이번에는 그가 차에 타자마자 다가갔다. (국장의 차는 미 대사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대사관을 지키던 소련 민병대가 높은 눈 시야를 가렸고, 톨카체프는 나중에 이 사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걸고 떠났다. 그는 다시 짧게 말하고 짧은 쪽지 한 장을 차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메모에는 미국 관리와 접촉하고 싶다는 작가의 열망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CIA 본부의 결정에 따라 메모에 대한 대응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퇴근 후 같은 사람이 CIA 국장에게 접근했고, 그는 또 다른 쪽지를 차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쪽지에는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폐쇄된 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서 "비밀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가 어떻게 처리될지 걱정되어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했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CIA 국장은 이 남자의 끈기에 감명을 받아 메모에 적힌 장소에 차를 주차하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본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CI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계속 거부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금지했습니다.

5월, 이 자원 봉사자는 네 번째로 CIA 국장에게 다가가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차를 두드렸습니다. 국장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다시 나타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1977년 12월, 그는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변호판을 단 자동차를 타고 현지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건네며 책임 있는 미국 관리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채 미국 대사관 보안 담당관에게 전달되었고, 그 담당관은 현지 CIA 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자원 봉사자는 미국 관리와의 초기 접촉에 대한 지침과 함께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나아가 소련 항공기의 전자 시스템에 관한 두 장의 타이핑된 정보를 첨부하여 새로 부임한 현지 CIA 국장 가드너 "거스" 해서웨이에게 진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벨렌코가 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2] 그리고 몇 가지 접촉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헤더웨이는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자원 봉사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CIA 본부에서 정보 샘플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잠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978년 1월 초, 본부는 다시 접촉을 승인하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전에 미국 관리가 소련 정부에 의해 기피 인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전년도에 CIA가 처리하던 사건의 기밀이 노출되어 두 명의 사건 담당관을 귀국시켜야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부는 최근 접촉이 소련의 도발 시도로 판명될 경우 모스크바에서 또 다른 장교를 잃을 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자원자가 제공한 정보를 평가한 결과 매우 흥미롭지만 소련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부가 자원자를 만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승인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1978년 2월, 우연한 기회에 미 국방부는 소련 항공기 전자 장치와 무기 제어 시스템에 대한 미군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CIA에 메모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1977년 12월에 지원자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통과했던 정보 유형이었습니다.

끈기는 성과를 가져옵니다

1978년 2월 16일, 이 자원 봉사자는 퇴근 후 길거리에서 차에 탄 해더웨이와 그의 아내에게 접근해 추가 정보 정보가 담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종이에 적는 것이 두렵고, 이 정보가 없으면 보안상의 이유로 도발이 두려워 저에게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 같다"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에 대한 주요 식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메모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중 두 자리를 제외한 모든 숫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쪽지를 받은 사람에게 특정 버스 정류장의 특정 시간에 각각 하나의 번호가 적힌 합판 두 장을 들고 줄을 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전화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였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해더웨이의 아내는 문제의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합판 두 개를 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알아보고 그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해더웨이는 즉시 CIA 본부에 이 자원 봉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케이블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본부에서 동의했습니다. 2월 26일, 러시아어에 능통한 사건 담당관 존 길서는 치밀한 계획 끝에 소련의 감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랜 시간 감시 탐지를 수행한 후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원봉사자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자의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길서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길서는 2월 28일에도 이 훈련을 반복했지만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78년 3월 1일, 톨카체프는 퇴근 후 다시 길거리에서 해더웨이와 그의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11페이지 분량의 손글씨 자료를 건넸고, 그 대부분은 소련의 군용 항공기 분야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였습니다. 이 메모에서 톨카체프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 주소, 정확한 직업, 그리고 개인적 배경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완전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외교 차량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했으며, 외교 찾은 후에도 불리한 조건 때문에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고 "수십 번이나"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거의 절망적이라고 말했고, 이번에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하면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미국을 돕겠다고 자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CIA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와 접촉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고민 끝에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놀

라운 정보 성공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락처 만들기

1978년 3월 5일 밤 10시경, 길셔는 자신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볼쇼이 극장의 공중전화로 집에 있는 톨카체프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를 했다. 길셔는 톨카체프가 3월 1일 메모에서 밝힌 대로 자신을 '니콜라이'라고 밝혔고, 톨카체프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적절한 사람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의 목적은 신변이 안전하며 미국 정보기관이 그와 그의 업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싶어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향후 접촉에 관한 추가 지침과 함께 다시 전화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8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사건 추진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 소련에 있는 톨카체프와 직접 접촉하고 해더웨이의 바람과는 달리, CIA 본부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데드롭(비인격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지침을 톨카체프에게 전달하여 그가 접근과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가 담긴 일련의 편지를 준비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디드롭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비밀문서'(SW)로 작성되어 여러 숙소 주소(실제로는 CIA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고한 주소)로 발송되어야 했습니다. 해더웨이의 주장에 따라 톨카체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회용 패드(OTP)'도 전달받게 됩니다. 일회용 패드(동일한 OTP를 가진 사람만 일반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는 일련의 숫자가 무작위로 입력된 문자)는 그의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8월 24일, 길셔는 톨카체프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톨카체프의 아파트 근처 전화 부스 옆에 있는 데드롭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톨카체프가 더러운 건설 노동자의 병어리 장갑 속에 숨겨둔 자료는 작전 메시지, 일련의 정보 요구 사항, 사용 지침이 담긴 SW 카본 페이퍼, 미리 작성된 3개의 '표지' 편지(겉보기에는 무고한 편지이지만 뒷면에는 SW를 숨겨야 하는 내용), 지침이 담긴 OTP로 구성되었습니다. CIA는 나중에 톨카체프가 해당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9월에 톨카체프가 보낸 세 통의 커버 레터가 모두 수신되었고, SW 내용이 성공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세 개의 편지 모두 소련 당국에 의해 개봉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였지만, SW는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SW 메시지에는 소련의 새로운 공중 레이더 정찰 및 유도 시스템, 새로운 소련 항공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결과, 개발 중인 다양한 소련 항공기의 무기 조준 시스템 작업 등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톨카체프는 또한 달하는 자필 메모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정보로 인해 마침내 균형이 기울었고, CIA 고위 관리자들은 톨카체프를 유효한 자원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해더웨이는 톨카체프와 CIA 간의 국내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와 직접 만나도록 주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9년 새해 첫날, CIA는 소련의 휴일이 느슨한 틈을 타 톨카체프와의 첫 개인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길서는 톨카체프가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의 아파트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미리 정해진 만남의 장소에서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톨카체프에게 91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40분 동안의 만남은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며 진행되었습니다.

톨카체프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여한 매우 민감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확한 공식, 도표, 오실로스코프 프레젠테이션 그림, 정확한 무기 및 전자 시스템 사양, 차트, 공식 문서에서 인용한 내용 등이 담긴 방대한 양의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대형 그래프 용지에 다양한 도표와 차트를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길서는 톨카체프에게 추가 정보 요구 사항과 작전 관련 질문과 함께 '선의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톨카체프의 차분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톨카체프가 이 중요한 국경일에 모스크바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러시아인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상적인 프로덕션

톨카체프가 첫 회의에서 제공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제한된 수의 민간 및 군 고위 고객에게만 배포되었습니다. 톨카체프 정보를 받은 군 고위급 인사가 1979년 3월 중앙정보국(DCI) 국장에게 보낸 메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보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메모에는 '특별 정보원'이 제공한 모든 정보가 사진 및 통신 정보 수집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된 새로운 데이터와 관련하여 메모는 소련이 미국이 이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이익에 상당히 해롭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메모는 이어서 정보원 제보의 가장 큰 가치는 기술 정보 수집원으로부터는 수년 동안, 아니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소련 무기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기도 전에 제공한 이 시스템에 대한 전체 문서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5월, CIA는 톨카체프 제품의 고위 고객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3일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민간 및 군 정보 기관의 고위 분석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그룹의 공통된 의견은 톨카체프의 정보가 인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은 그가 제공한 데이터 "최대 5년의 R&D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CIA 역사상 가장 가치 있고 생산적인 요원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가 및 배경

톨카체프와의 첫 개인 면담이 있기 전, 그의 필적 노트 중 하나는 분석을 위해 CIA 기술서비스국(OTS)의 필적 전문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978년 5월에 이루어진 분석은 긍정적이고 정확하며 심지어 예언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관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작가는 지적이고 목적의식이 있으며 대체로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기 규율이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

하지는 않습니다.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세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신감이 강하고 때때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중하거나 미묘하지 않은 방식으로요. 전반적으로 그는 합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이며 지적, 심리적으로 유용하고 다재다능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접촉하려는 미국 관리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톨카체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1927년 악티빈스크(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2년 후 모스크바로 이주한 후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언급된 유일한 형제자매는 기차 정비공으로 묘사된 유리 형제가 유일합니다.

톨카체프는 자신의 아내를 나탈리아 이바노바 네 쿠즈미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935년에 태어났으며 그가 일했던 연구소에서 전자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그는 그녀를 "안테나 전문가"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머니가 "1938년에 처형당했다"고 썼지만, 처형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아버지가 "소련 국가의 적들"의 운명인 노동 수용소에서 수년을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1955년 풀려난 그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적어도 한 명의 사건 담당관에게 아내의 부모가 겪은 잔인한 대우가 소련 정권에 대항하여 일하게 된 동기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왜 아내의 부모에게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내와 아내의 부모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반유대주의를 고려할 때 이 점이 박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톨카체프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가족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집안일을 돕고 아내와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가 "합리적인 금액"의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해서 아내와 벌써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52살이고 제 아내는 44살입니다. 분명히 저는 한 번만 사랑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저는 인류에게 존재하는 가족에 대한 정상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1966년에 태어난 아들 올렉이라는 이름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1979년 올레그는 '미술 학교'에 진학했고, 1982년에는 건축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톨카체프는 처음부터 아내나 아들에게 자신이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톨카체프는 자신의 기술 자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1948년 '광학 기계 레이더 교육'을 이수하고 1954년 하르코프 폴리테크닉 연구소를 졸업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음에서 근무했습니다.

NIIR(국립전파연구소). 그는 자신을 이 연구소의 "선도적인 시스템 설계자"라고 설명하며 24명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개방된 대형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얼마나 많은 사생활이 있는지, 비밀을 훔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톨카체프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250루블을 받고 여기에 40%의 '비밀 보너스'를 더해 350루블(당시 공식 환율로 약 110달러)의 월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월급이 이 금액의 두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분야에서 발명품으로 금전적인 상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소련의 평균 월급은 한 달에 120루블로 추정되었습니다.

톨카체프와 그의 가족은 미국 대사관에서 불과 400미터 떨어진 아파트 건물 9층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 위치 덕분에 대사관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게 걸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방 두 개와 부엌, 욕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초라하지만 모스크바 기준으로는 꽤 호화로운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숙소 때문에 그는 CIA를 위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톨카체프는 CIA와 협력하는 동안 다양한 건강 문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 복막염, 위염을 앓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하키를 하다가 코뼈가 부러져 밤에 호흡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취미는 조깅, 스키, 독서, 미국의 소리와 서독 뉴스 방송 청취, TV 시청이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동기 부여

톨카체프는 공산당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감당할 수 없는 위선적 선동에 휩싸여" 정치에 대한 초기 관심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연극이 너무 이데올로기적으

로 변했기 때문에 연극 관람도 줄었다고 썼습니다.

첫 번째 개인 미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톨카체프는 미국 정보기관에 접근하면서 자신이 서방에 가치 있는 고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대의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반체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1979년 4월, 그는 자신의 동기를 서면 메모로 설명했는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솔제니친과 사하 로프를 모르고 노비 미르에 출판 된 솔제니친의 작품 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제니친과 사하 로프가 중요한 역할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벌레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했습니다. 나는 우편으로 보낼 계획 인 짧은 전단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대로 생각한 후 이것이 쓸모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외국 언론인과 접촉하는 반체제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 업무의 특성상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1급 비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저는 완전히 고립되거나 청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행동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 본인은 후퇴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으며, 이 길에서 벗어날 의사가 없습니다. 향후 나의 행동은 [나의] 건강과 [나의] 업무 성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중국 대사관 등과 어떤 대가를 받고 접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나를 매혹 시켰고 나는 그것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당신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기에는 충분한 환상이나 낭만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가 여러분에게 협업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타주의자 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보수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의미에서 내 작업의 중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톨카체프는 "5, 6년 전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지만 "아들이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플랩이 날아갈 경우 우리 가족이 심각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처음에 그는 미국 전시회에서 접촉을 시도할까 생각했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그는 대사관 주변을 오랫동안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발견한 그는 차에서 내리거나 타고 있는 미국인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일부 차량에 러시아인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차를 선택할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톨카체프는 초기 접근의 목표로 현지 CIA 국장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접근하기로 선택한 차의 운전사가 러시아 운전사가 아닌 미국인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언급

했습니다."그의 밝고 초라한 옷차림-외교관의 철없는 러시아 운전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차량이 저런 옷을 입을 리가 없죠."

작전이 시작됩니다.

1979년 1월 톨카체프와의 첫 만남은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전달한 정보는 가장 열렬한 회의론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CIA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자와 접촉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CIA는 이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CIA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습니다. 톨카체프는 미군 계획가들에게 엄청난 가치와 고도의 기술적 특성을 지닌 정보라는 점에서 소련 작전에서는 전례가 없는 종류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톨카체프는 러시아 자산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드룸 대신 모스크바에서 직접 대면 회의를 통해 광범위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1월의 만남은 이후 18개월 동안 두세 달에 한 번씩 톨카체프와의 성공적인 만남의 패턴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톨카체프의 매우 귀중한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작전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즉, 실행 가능한 요원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상 패키지와 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요원과 합의하고, 요원의 접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련의 기밀을 안전하게 CIA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세부적인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대량으로 계속 전달했습니다.

상담원 커뮤니케이션

톨카체프 작전을 위한 접촉 루틴을 수립하려면 상당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 CIA는 요

원에게 다음과 같은 외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는 에이전트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미 톨카체프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979년 2월, 이 사건에 사용될 통신 유형에 대해 CIA 본부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톨카체프에게 소형 스파이 카메라, 조도계, 카메라 지침, 작전 노트가 들어 있는 데드롭이 내려졌고, 이 모든 것은 다른 "더러운 병어리 장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스파이 카메라는 성냥갑 크기로, 톨카체프가 사무실에서 몰래 문서를 촬영할 수 있도록 OTS에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디드롭에서 톨카체프에게 전달된 메모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제공하는 통신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등 한 달에 한 번, 해당 월의 숫자에 해당하는 날짜에 톨카체프가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톨카체프는 해당 날짜의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전화를 받고 '잘못된 번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발신자가 요청한 이름에 따라 톨카체프는 "올가", "안나", "니나" 등 미리 준비된 디드롭 사이트 세 곳 중 한 곳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발신자는 "발레리"를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 통화 1시간 후에 미리 예약된 장소에서 개인 미팅이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달의 숫자에 15일을 더한 날짜(3월 19일, 4월 19일, 5월 20일 등)에 톨카체프는 미리 정해진 장소 중 한 곳에, 그 달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나타나 5분 동안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정규 사건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비밀 번호와 인식 신호를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한 번, 매월 마지막 주말에 톨카체프는 디드롭을 통해 물품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톨카체프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가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신호가 전송되었다면 미리 준비된 장소에 소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회수 신호를 보내면 소포가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IA에 전달할 물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월요일에 표시된 신호를 보내 배달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사건 담당자가 주차된 차량 신호를 이용해 소포 수령 준비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밤에 톨카체프는 낙하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복구 신호를 올려 낙하물이 성공적으로 회수되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톨카체프는 데드드롭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1979년 4월에 쓴 메시지에서 그는 CIA가 왜 디드롭을 사용하여 통신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만남이 디드롭 패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두 경우 모두 CIA 요원이 통신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받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톨카체프는 개인 회의가 훨씬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개인 회의가 더 선호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심리적으로" 개인 회의를 통해 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실수로 잘못된 손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경우 자신이 제공한 문서가 자신에게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더웨이는 톨카체프의 논리에 동의했고, 궁극적으로 CIA 본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1979년 4월부터 톨카체프와의 개인 회담은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79년 하반기에 톨카체프와 몇 차례 만남이 있었고, 그 후 5년 동안 20회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톨카체프는 수백 롤의 노출 필름과 엄청난 양의 귀중한 정보가 담긴 수백 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CIA 사건 담당관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감시 탐지 실행

사건 담당관은 통신 계획의 모든 요소를 수행하기 전에 KGB의 감시를 받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 탐지 실행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 담당관이 겉으로 보기에 무고한 방식으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받고 있는지 눈에 띄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련 내 방첩을 담당했던 KGB 제17국은 대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감시팀이 특정 사건 담당관을 감시할 때 그 담당관이 도시를 돌아다닐 때 어떤 작전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모든 사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쇼핑, 심부름, 여가 활동, 관광, 아이들과 외출, 개 산책 정기적으로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KGB 감시팀의 지루함을 유발하여 더 생산적인 다른 타겟으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요원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 감시에서, 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 새로운 디드롭 장소를 찾고, 해당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작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모든 요원 통신 시스템에 일련의 대체 연락처를 구축해야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담당자가 특정 날짜에 감시를 받지 않을지 미리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CIA 사건 담당관에 대한 심하기 때문에 모든 요원 통신 시스템의 또 다른 부분은 여러 명의 사건 담당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 중 한 명이 특정 날짜에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원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KGB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기술은 톨카체프를 만나기 위해 파견되는 사건 담당자의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1980년 6월 이 작전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존 길셔는 오후 7시 20분경 미 대사관 건물로 차를 몰고 갔고, 표면적으로는 그곳에 사는 대사관 직원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나중에는 다른 차량을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KGB 감시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변장했습니다. 감시가 없는지 확인한 길셔는 차량 안에 있는 동안 양복을 벗고 러시아 모자와 노동자 계급 옷을 입고 마늘을 많이 먹고 보드카를 몸에 뿌리는 등 최대한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 러시아인처럼 보이도록 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길셔는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중전화 부스까지 이동한 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상담원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길셔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평범한 양복을 입고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확인한 후 대사관을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톨카체프의 사건 담당관들은 이 작전 과정에서 이 기법을 약간의 변형을 가미하여 요원과의 여러 회의에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상담원 보상

대부분의 요원들이 그렇듯이 톨카체프에게도 보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작전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 사항이 해결되면서 그가 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CIA가 자신의 업무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보상에 관한 대화는 1979년 4월 두 번째 개인 면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분간의 도보 접촉에서 톨카체프는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필름 5롤과 실질적인 정보 및 작전 정보가 담긴 50페이지가 넘는 수기 메모를 넘겨주었습니다. 노트에서 그는 12년 동안 7단계로 나누어 정보를 전달하고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1월에 전달한 방대한 자료의 전달로 1단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전에 전달할 수 있었던 SW 메시지와 메모를 통해 전달할 수 있었던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불신의 벽을 위한 외로운 노력"과 지금까지 제공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1년 반 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제공한 정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수만 루블의 다양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톨카체프는 7단계 계획에서 설명한 대로 정보를 넘겨주고 벨렌코가 받은 것"과 같은 "6자리 수"의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넘어 새로운 정보가 개발되고 자신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계속 넘겨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3] 톨카체프는 단지 돈 때문에 협조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을 따랐겠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미국에 넘겨야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두 번째 방법만이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1979년 10월, 톨카체프는 다시 환급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4월에 급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 후, 그는 DCI가 그에게 루블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거의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톨카체프는 이제 자신이 "6자리 수"의 보상을 원한다고 말한 것은 "6개의 0!"을 의미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벨렌코의 탈북으로 인해 소련이 미그-25를 재장비하는 데 3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소련이 이 항공기를 다시 장착할 대한 정보를 CIA에 제공한 것에 대해 "수백만 달러는 그리 환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추론했습니다.

1979년 1월 톨카체프가 길셔를 처음 만났을 때, 길셔는 자신의 상사가 요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면 그가 돈을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 톨카체프는 4월의 메모에서 "무모하게 많은 돈을 다루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미 자동차와 값비싼 다차를 살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갖고 싶었던 적은 없지만 "성장하는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따라" 아들이 15세 또는 16세가 되면 자동차를 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과 아내 모두 작은 집과 땅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다차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자신의 연봉 요구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4월에 올린 "[CIA]와 일하는 기본 목표는 최단 시간 내에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고 끝까지 일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1979년 12월에 열린 다음 회의에서 톨카체프는 자신의 연봉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10만 루블이 넘는 금액을 수락한 톨카체프는 이전에 몇 천 루블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돈이 꼭 필요한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겠다고 말하며 다음 회의에서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단지 CIA가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로 돈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5월, 톨카체프의 연봉은 마침내 합의되었습니다. 그는 1979년에 "미국 대통령의 연봉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매년 더 높은 연봉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리를 잡고 생산적으로 일했습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에스스로에 보관되어 나중에 그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 자금은 8.75%의 이자를 받게 되며, 그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톨카체프는 자신의 메모 중 하나에서 자신의 급여 일부를 러시아 반체제 운동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CIA 보상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죽지 않은 곰의 가죽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급하기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는 이 자금 중 일부를 소련 당국에 의해 탄압받은 반체제 인사들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 그는 CIA의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알고 톨카체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문제 해결

해결에 시간이 걸렸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톨카체프가 접근할 수 있는 대량의 고도로 기술적인 데이터를 가장 잘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1979년 2월에 그에게 전달된 소형 카메라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카메라로 롤당 70~80회 노출로, 톨카체프가 사무실에서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빛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메라의 크기가 작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사진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톨카체프는 딸깍 소리가 너무 크고, 사진을 찍기에 적합한 13인치 높이로 카메라를 올리기 위해 책 여러 권을 쌓아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톨카체프는 그에게 일반 35mm 카메라를 선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무실

에 있고 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점심시간에 집에 가져가서 민감한 연구소 문서를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의 결과로 1979년 6월, 그는 펜탁스 ME 35mm 카메라와 카메라를 의자 뒤쪽에 부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즉시 카메라 교체를 정당화했습니다. 1979년 4월과 6월 회의에서 톨카체프는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필름 수십 롤을 전달했지만 거의 모두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1979년 10월과 12월에 열린 회의에서 그는 펜타스를 받은 후 집에서 촬영한 150여 롤의 필름을 제공했는데, 모두 우수한 품질이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노트에는 그가 촬영한 문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CIA 본부는 필요한 경우 톨카체프에게 사무실에서 문서를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1979년 10월, 톨카체프는 OTS에서 제작한 최신 스파이 카메라 2대를 전달받았고, 12월에는 4대를 더 받았습니다. 적절한 은폐 장치로 위장한 이 카메라는 필름 한 롤당 약 100장의 촬영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름 교체가 복잡했기 때문에 톨카체프는 한 롤을 다 사용할 때마다 카메라 전체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새로운 보안 관행

톨카체프에게 새 스파이 카메라를 지급할 때 신중하게 생각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톨카체프의 연구소는 1979년 12월에 새로운 보안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소 직원들은 당일 업무 마감 전에 반납하기만 하면 연구소 도서관에서 민감한 문서를 무제한으로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서는 도서관에 건물 출입증을 맡겨야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톨카체프는 출입증을 제시하지 않고는 건물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서를 아파트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톨카체프는 새로운 스파이 카메라로 연구소에서 문서를 촬영하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는 남자 화장실에서 문서를 촬영하는 것이 유일한 보안 방법이라고 CIA에 알렸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간 동안 6대의 소형 카메라 중 4대의 프레임을 모두 , 1980년 2월 개인 회의에서 CIA 사건 담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카체프는 집에서 35mm 펜타스로 사진을 찍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저조도 조건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CIA의 소형 카메라에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

다.

촬영하는 동안 카메라를 가만히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카메라가 주기적으로 오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제한에 대처하기 위해 톨카체프는 CIA에 자신의 건물 출입증을 위조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문서를 대출할 때 가짜 건물 출입증을 도서관에 두고 진짜 출입증을 사용하여 점심시간에 건물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입증을 '분실'하여 담당 직원에게 넘겨 복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컬러 사진을 찍고 패스 사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설명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운 좋게도 1980년 2월에 새로운 보안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절차의 변화는 연구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점심시간에 쇼핑을 하러 연구소를 나가야 하는데 도서관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대출한 민감한 문서를 반납하고 건물 출입증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덕분에 톨카체프는 집에서 문서 촬영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의 이점은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1980년 6월, 톨카체프는 200롤에 가까운 필름을 넘겼는데, 이는 한 회의에서 넘길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극찬 리뷰

한편, 톨카체프의 보고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1979년 12월 국방부가 국방정보국에 보낸 각서에 따르면, 톨카체프의 정보 덕분에 공군은 최신 전투기 중 하나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전자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던 방향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합니다. 또한 1980년 3월, CIA 내부 예비 평가에서는 톨카체프의 최신 소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배치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해를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국가적 기술적 수단"으로 생산된 데이터와 일치하지만 다른 수집 시스템이 제공할 수 없는 중요한 세부 정보를 추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980년 3월에는 CIA 번역가들이 이 작업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톨카체프가 제공한 밀린 자료의 번역 작업을 국방부 직원들에게 맡기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처리하려면 8명의 사무원과 3명의 러시아어 번역가가 7~8주 동안 풀타임으로 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계획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4월 CIA 내부 문건에 따르면 톨카체프가 소련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전파 방해 방지 테스트에 관한 정보를 "고유한" 정보라고 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수년 동안 국가 기술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1980년 6월, 톨카체프는 소련의 새로운 항공기 설계에 관한 고유한 정보와 다른 소련 전투기 개조 관련 광범위한 정보,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의 공중 미사일 시스템에 관한 문서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작성된 또 다른 내부 비망록에는 톨카체프의 스파이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그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는 최소 8~10년 동안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소련이 CIA에 유출한 정보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을 설계, 테스트, 배치하는 데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칭찬은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 9월, 국방부의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 "[톨카체프] 보고의 영향은 미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명과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잠재력 측면에서 무한합니다." 또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R&D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톨카체프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1월부터 1980년 6월까지 톨카체프는 미군에 엄청나게 귀중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습니다.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이 이 정보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상 사태에 대비한 계획

작전 초기 단계에서 CIA는 궁극적으로 언제 어떻게 작전을 종료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톨카체프가 가진 정보의 엄청난 가치를 고려할 때 잠재적인 탈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톨카체프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는 톨카체프와 그의 가족에게 망명을 제안하는 데 신속하게 동의했지만, 가능한 한 몇 년 동안 실제 소련을 떠나는 것을 연기하여 그의 접근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톨카체프도 CIA와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끝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다소 달랐습니다. 1979년 4월에 남긴 메모에서 그는 "KGB 기관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며 포이즌 필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는 1979년 10월 메모에서 이 요청을 되풀이했고, 그 이후에도 CIA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꾸준히 이 요청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 CIA 요원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했지만 점차 톨카체프를 미루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이 문제는 중앙정보국(DCI)에 회부되었지만, 중앙정보국은 포이즌 필 발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통보받은 톨카체프는 자신의 사례를 호소하는 편지를 DCI에 썼고, 1980년 6월 회의에서 사건 담당관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처한 위험을 자세히 설명하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문서를 입수하지 않고는 많은 요구 사항에 답할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그는 연구소 도서관에서 대량의 민감한 문서를 대출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연구소에서 작성되었지만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문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서를 얻고자 하는 다른 소련 연구 기관이나 기관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톨카체프는 어떤 이유로든 KGB가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을 의심하면 문서 반출 허가증을 검토해 자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KGB가 다음으로 할 일은 자신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것이며, "가족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을 KGB에게는 절대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빨리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는 그의 노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자살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활동 규모와 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방법"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톨카체프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자신이 미국인에게 넘긴 정보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유출되었을 때 피해 평가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크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980년 6월의 이 메모에서 톨카체프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의 망명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자 CIA의 제안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탈출 준비를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전율

요원을 첫 번째 담당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은 모든 요원 운영에서 항상 신호탄이 되는 사건입니다. 존 길셔가 실제로 톨카체프를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요원의 첫 번째 담당자였고,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작전을 순조로운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톨카체프에게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두 사람은 위험한 작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셔가 모스크바를 떠날 때가 되자 CIA는 톨카체프가 새로운 사건 책임자의 등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10월 14일, 톨카체프는 새 사건 담당관을 처음 만났고 주저 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이정표가 지나간 셈이었습니다.

톨카체프는 첫 회의에서 새 담당관에게 러시아 지굴리라는 새 차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회의는 근처에 주차된 차에서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다른 회의도 차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CIA는 결국 톨카체프가 주차한 차 안에서 개인 회의를 하는 것이 도보 회의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책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으로 요원을 추적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이 채 주차된 차를 본다면 KGB가 번호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톨카체프를 만나는 CIA 사건 담당자들은 항상 노동자 계급 러시아인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 따뜻한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톨카체프의 주차된 차 안에서 회의하는

것이 회의 계획에 포함되었고 작전 기간 내내 사용되었습니다.

대체 커뮤니케이션

1980년 9월, CIA 본부는 톨카체프와 단거리 요원 통신(SRAC)을 비상 백업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톨카체프가 긴급 회의를 원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의 위험 없이 간단한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부는 당시 사용 가능한 최고의 최신 SRAC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동일한 유닛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나는 사건 담당자가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상담원이 사용했습니다. 이 유닛은 담뱃갑 두 개를 끝에서 끝까지 늘어놓은 크기 정도였습니다. 각 장치에는 탈착식 안테나, 러시아어 또는 영어 키보드 플레이트, 배터리 팩과 배터리, 충전기,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계획된 전송 전에 상담원과 사건 각자의 장치에 글자씩 입력하여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메시지가 장치에 입력되면 자동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닛의 용량은 수천 자에 달했습니다. 장치들 사이에 큰 물리적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 미터의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이 장치들은 단 몇 초 동안만 버스트 전송으로 메시지를 교환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해독된 텍스트를 장치의 작은 화면에서 스크롤하여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통신 방법의 사용은 매우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SRAC 교환을 시작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몫입니다.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톨카체프는 정기적인(보통 한 달에 한 번) 시간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신호 지점(전봇대에 분필로 표시)을 표시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 지점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 지점은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상담원이 신호를 표시하면 SRAC 교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상담원과 사건 담당자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미리 준비된 전자 서신 드롭(ELD) 장소로 이

동합니다. 이 장소는 SRAC 교환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가깝고, 사건 담당관과 상담원 사이에 시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 대체 장소

ELD 교환을 위한 장소와 시간이 통신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했거나 수신하지 못했음을 알리기 위해 미리 준비된 신호가 있었습니다. 톨카체프 작전에서 이러한 신호는 주차 차량 신호(PCS)였습니다. 즉, 에이전트가 주어진 시간에 특정 장소에 특정 방식으로 차를 SRAC를 성공적으로 수신했는지 또는 수신하지 못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송합니다. 그 대가로 CIA는 PCS를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다.

1980년 10월 회의에서 톨카체프에게 전달된 메모를 통해 SRAC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습니다. 톨카체프는 1980년 12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981년 3월에 SRAC 유닛과 이에 수반되는 장비 및 통신 계획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 버그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1981년 3월 톨카체프와의 접촉 빈도를 줄이고 KGB가 그의 활동을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톨카체프를 장기간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톨카체프는 1981년 11월까지 다시 만나지 못했고, 이때 그는 SRAC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장치를 반납했습니다. 이 장치는 나중에 수리되어 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1982년 3월, 이 에이전트는 SRAC 교환을 요청했고 3월 13일에 SRAC 메시지 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톨카체프는 정기 회의가 끝난 지 3일 만에 예정에 없던 개인적인 만남을 원했기 때문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 만남의 목적은 OTS가 만든 가짜 건물 출입증의 첫 번째 컷에 대한 비평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감한 문서를 안전하게 체크아웃할 수 있도록 이 패스를 확보하고 싶었던 톨카체프는 SRAC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이 작전에 도입된 대체 통신 수단은 SRAC만이 아니었습니다. 1981년 11월, 톨카체프는 "임시 단방향 링크"(IOWL) 기지 간 대체 통신 시스템의 일부로 상업적으로 구매한 단파 라디오와 일회용 패드 2개를 지침과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수신할 때 단파 무전기에 연결해야 하는 복조기 장치도 전달받았습니다.

톨카체프는 라디오에 복조기 장치를 연결하여 특정 시간과 요일에 특정 단파 주파수를 튜닝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를 클릭해 전송 중인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각 방송은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라이브 메시지와 더미 메시지의 전송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상담원은 나중에 복조기 장치 화면에서 메시지를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처음 세 자리는 실시간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이 경우 상담원은 5자리 그룹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스크롤하여 일회용 패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톨카체프는 하나의 메시지에서 400개 이상의 5자리 그룹을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톨카체프는 이 IOWL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아파트에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저녁 시간)에 이러한 방송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할 수 없다고 담당관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와 아들이 항상 먼저 잠자리에 때문에 다른 저녁 방송 일정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은 특정 근무일의 오전 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이 시간에는 톨카체프가 적절한 구실을 퇴근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불운과 소련의 보안과도 충돌했습니다. 톨카체프의 연구소는 서면 허가 없이는 근무 시간 중 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새로운 보안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1982년 12월, 톨카체프는 자신의 IOWL 장비와 방송 일정, 지침서, 일회용 패드를 반납했습니다. CIA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그와 예정에 없던 만남을 주선할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공작술과 운이 좋았던 CIA는 톨카체프와의 개인적 만남을 탐지되지 않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10회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CIA 요원들에 대한 KGB의 감시가 심해져 회의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논리 없이 주기적으로 여러 사건 담당관들에 대한 KGB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CIA는 개인 면담 기법을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 작전에 사용된 새로운 카운터감시 기법에는 "잭인더박스"(JIB)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JIB(사람의 상반신처럼 생긴 팝업 장치)를 통해 사건 담당자는 차량 감시 중에도 요원과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JIB는 대형 소포 등으로 위장한 차량으로 밀반입됩니다. 그 후 톨카체프의 사건 담당관과 다른 경찰서 직원들은 요원과의 예정된 만남이 있기 수 시간 전에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미리 계획된 경로를 따라 운전자는 어느 시점에서 뒤따라오는 감시 차량이 사건 담당관과 다른 CIA 요원이 탑승한 차량을 잠시 놓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회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회전 중 하나가 끝나면 톨카체프의 사건 담당관은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에서 뛰어내리고, 이때 운전자는 JIB를 작동시킵니다. JIB는 뒤따라오는 감시팀에게 실종된 사건 담당관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 차량은 계속 이동하여 결국 지정된 목적지, 일반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다른 CIA 요원 중 한 명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다시 큰 포장재에 숨겨져 있던 JIB가 차에서 내려집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 담당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KGB 감시 요원들이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알려진 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사건 담당관은 러시아 스타일의 코트와 모자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후, 감시를 앓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사관이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감시를 피하는 방법은 톨카체프와의 회의에서 여러 번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감시를 피했고 거의 확실하게 어떤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KGB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담당자의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거나 도로에 차를 세우거나 기타 괴롭힘을 가하는 등 KGB의 보복이 예상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심되는 CIA 요원에 대한 감시가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사건 담당관이 톨카체프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톨카체프와의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다른 방식으로도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1983년 11월, 톨카체프는 전화기가 아들 방에 있고 항상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정에 없던 회의를 잡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IA가 KGB의 감시를 물리칠 수는 있었지만, 일반적인 침대의 습관을 물리치는 것은 CIA나 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어요!

올레그를 위한 호의

톨카체프가 미국 정보기관과 관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올렉은 서양 로큰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톨카체프는 1980년 10월 회의에서 사건 담당관에게 전달한 메모에서 아들에게 전달할 인기 음반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양식 스테레오 장비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련 당국이 자주 방해하는 서방 라디오 방송을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CIA는 1981년 3월 회의에서 로큰롤 음악이 녹음된 카세트 7개를 제공했지만, 이러한 카세트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했습니다. 톨카체프는 그런 음악은 러시아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CIA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 자신은 그런 음악을 더 귀찮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들을 위해 스테레오 헤드폰과 몇 개의 앨범, 그리고 이 앨범에 수록된 노래 가사를 영어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위해 이전에 녹음된 7개의 카세트에 담긴 노래 가사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레그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1982년 3월, 톨카체프는 '마지못해' 개인적인 부탁을 더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워크맨을 선물하고, 올렉이 기계 그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도의 연필 세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소련제 면도날로 면도하는 것은 불쾌한 작업"이라며 소련제 면도날이 아닌 면도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우리의 개인 생활도 때때로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사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소한 것들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결국 동유럽의 CIA 요원들은 톨카체프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지에서 면도기와 1년치 면도날을 구입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983년 2월, 톨카체프는 아들을 위해 전용 제도용 펜, 잉크, 지우개, 펜촉 등 다양한 제도 재료를 요청했습니다. 1983년 4월에는 위해 건축에 관한 서양 서적과 아들을 위한 다른 서양 서적을 요청했는데, 이 서적들은 모두 자신과 아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책에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 성경(러시아어) 사본, DIA 간행물인 <소련의 군사력>, 골다 메이르의 회고록, 솔제니친의 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유명 인사의 전기와 인기 있는 서양 소설도 요청했습니다. 모두

그의 아들은 톨카체프의 CIA 역할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분명히 수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문제

톨카체프의 보수는 계속해서 협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그는 에스스로 급여에 쌓여 있는 8.75%의 이자를 매년 연말에 루블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백한 보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1981년 11월, 톨카체프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인 4만 달러가 넘는 루블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1982년 2월, 톨카체프는 이자를 달러에서 루블로 환산할 때 공식 환율이 아닌 암시장 환율(그가 생각하기에 실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CIA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그는 받은 루블의 4배 이상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CIA 관리들은 톨카체프의 정보가 그가 요구한 금액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데 동의했고, 이듬해부터 그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게 될 거액의 자금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톨카체프나 그의 가족이 비정상적인 지출을 하면 소련 당국에 쉽게 발각되어 보안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루블이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값비싼 보석이나 금화로 일부 보상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이후 서면 교환에서 톨카체프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의 "매우 순금 러시아산 보석"으로 부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보석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것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CIA 본부는 런던, 로마, 파리, 헬싱키, 뮌헨, 뉴욕, 워싱턴의 상점과 기타 가능한 출처를 수소문하여 해당 보석을 찾아 구매했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결국 몇 가지 물건을 찾아서 톨카체프에게 전달했습니다.

1982년 12월, 톨카체프는 다시 보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비교적 많은 돈을 비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동에서 "완전한 고장"이 발생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숨기거나 기밀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동료에게 들키는 등 '부분적 고장'이 발생하면 뇌물을 주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CIA 본부는 이 아이디어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결국 이 아이디어는 폐기되었습니다.

탈출 계획

CIA는 또한 체포 위협이 감지될 경우 톨카체프와 그의 가족을 소련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1979년 12월에 톨카체프에게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1980년 2월에 소련을 떠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CIA가 자신과 가족을 소련에서 빼낼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 아내와 아들이 자신의 정보 활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망명 가능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CIA에 알렸습니다.

1980년 6월 회의 이후 톨카체프와 그의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련 CIA 요원들은 신호 장소와 요원 픽업 장소 등 실행 가능한 탈출 시나리오를 고안하는 임무를 맡았고, CIA 본부는 요원과 그의 가족을 소련에서 밀반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톨카체프는 이 주제를 처음 접한 후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톨카체프의 전 사건 담당관 중 한 명은 톨카체프가 주기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CIA가 특수 제작한 경비행기를 소련의 한 시골 지역으로 보내 톨카체프와 그의 가족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회고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논의할 때 그는 소련의 항공기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항공기는 무게 때문에 아내가 탑승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3년 1월 톨카체프 연구소의 새로운 보안 규정이 소련이 연구소의 민감한 정보 유출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후 탈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톨카체프와 그의 가족이 모스크바를 벗어날 수 있다면 레닌그라드 옵션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레닌그라드에서 차량을 픽업한 후 차량에 특수 제작된 은신처를 통해 국경을 넘어 핀란드로 밀입국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모스크바 외곽에서 차량을 픽업하여 톨카체프와 안전한 수용소로 밀입국시킨 후, 이후 통제된 항공기나 특수 개조된 차량을 육로로 출국하는 것입니다.

1983년 3월에 열린 다음 회의에서 톨카체프에게 적절한 대안과 함께 실제로 탈출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CIA의 잠정 계획이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최종 계획에 도움이 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3월 회의에서 톨카체프에게 전달된 서면 메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모에는 4월에 톨카체프를 다시 만나 피드백을 받고 탈출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톨카체프는 계획대로 1983년 4월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대안이 담긴 망명 계획이 담긴 봉투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가족 상황" 때문에 당시에는 망명을 고려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서면 메모에서 망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소련을 떠나 이스라엘로 간 지인이 있었는데, 결국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이 가족의 여성은 이후 톨카체프의 아내에게 고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톨카체프는 아내가 "너무 많은 향수에 시달릴 것"이라며 소련은 물론 모스크바를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톨카체프는 아들이 "2, 3년 서방으로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친구들이 소련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소련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톨카체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망명은 생각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 상황이 어떻게든 바뀌는 날을 대비해 탈출 계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기된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프로덕션 보호

1980년 중반이 되자 톨카체프는 점심시간에 사진을 찍기 위해 문서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이 작업은 규칙적인 일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날씨였습니다. 겨울에는 톨카체프가 두꺼운 옷을 입고 많은 양의 문서를 연구소 몰래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이 제한되었습니다.

한편 CIA 본부는 보안 제한이 경우 톨카체프가 문서를 반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짜 건물 출입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980년 10월, 본부는 11월에 위조 출입증의 최종 버전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달, 톨카체프는 연구소의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문서 로그아웃 허가 카드를 CIA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CIA의 기술 전문가들에게 이 카드의 복제를 시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카드에는 톨카체프가 서명했던 민감한 문서 목록이 모두 들어 있었으며, 대부분 CIA를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해 입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카드를 사용하여 진짜 카드를 은밀하게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이 요원은 미국에서 연구소의 민감한 정보가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면 KGB가 가장 먼저 할 문서 로그아웃 카드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톨카체프를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걱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톨카체프가 "깨끗한"

카드가 없다면 기록에 그를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OTS는 이 출입증과 건물 출입증을 재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둘 다 1981년 초에 완성되어 톨카체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톨카체프는 1981년 3월에 가짜 로그아웃 카드를 진짜 카드로 교체하여 적어도 당분간은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미래. 그러나 그는 외부 표지의 색이 맞지 않아 가짜 건물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연구소는 보안 절차가 다소 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톨카체프는 건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 11월, 그는 소속 기관에서 문서에 서명할 때 건물 출입증을 문서 보관소에 맡겨야 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무렵 OTS는 가짜 건물 출입증을 완성했고, 그 달에 열린 회의에서 대리인에게 전달된 자료에도 이 출입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톨카체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하여 위조 출입증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색상이 여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1월과 2월에 장기 휴가를 가는 동안에는 원래 패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 패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건 담당관은 주어진 시간 내에 에이전트와 다시 만나서 패스를 돌려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패스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서 패스를 받고 싶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톨카체프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산에서 빠지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톨카체프는 연구소의 보안 제한이 강화되고 건물 출입증의 정확한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속도가 느리기는 했지만 다큐멘터리 정보를 계속 생산했습니다. 1981년 12월에는 35mm 필름 몇 롤을 전달했고, 1982년 2월에는 수십 롤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보안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촬영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톨카체프는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톨카체프는 이러한 보안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지어낸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끔 건물 출입증을 두고 문서를 대출한 후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기 위해 출입증을 받으러 돌아와서 "상사가 현재 문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한 문서를 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담당자가 "위험하다"고 말하자 톨카체프는 웃으며 "모든 것이 위험하죠"라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1982년 3월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OTS가 제작한 가짜 건물 출입증에 대한 추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OTS가 정확한 색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사건 담당관에게 패스를 찢은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1981년 11월부터 1982년 5월까지 톨카체프가 건물 출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선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5월에 보안상의 이유로 이러한 개인적 접촉을 몇 달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1982년 하반기에 CIA 사건 담당관들에 대한 KGB의 감시가 심해졌지만 일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감시로 인해 계획된 여러 회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2년 12월에야 CIA가 JIB 기술을 처음 사용한 덕분에 톨카체프와 다시 개인적인 접촉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12월 회의에서 이 요원은 처음으로 OTS가 제작한 건물 출입증을 사용하여 민감한 문서를 자택에서 촬영하기 위해 몰래 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카체프는 연구소에 새로 도입된 2단계 건물 출입 시스템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어 우울해했습니다. 이제 그를 비롯한 몇몇 고위 간부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건물을 나갈 때마다 건물 출입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시 들어오려면 메인 데스크에 경비원에게 패스 번호를 알려주고 패스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 출입증이 이전 출입증과 달라서 위조된 OTS 출입증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톨카체프를 비롯한 연구소의 모든 직원은 점심 식사를 위해 집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중에 연구소를 떠나려면 상사로부터 허가서에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톨카체프는 정해진 아침에 단파 라디오를 들으며 IOWL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아파트에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요청했지만,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CIA 본부는 소련이 이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된 알게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톨카체프에게 6개월(나중에 '수개월'로 수정됨) 동안 물러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본사는 또한 톨카체프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특수 카메라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며 반대했지만, 요원에게 작전 활동을 중단하는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3년 2월과 3월에 열린 회의에서 CIA 사건 담당관이

는 보안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운영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톨카체프와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3월 회의에서 톨카체프는 자신의 새 건물 출입증 한 장과 사진을 제공하여 OTS가 복제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3일 연속으로 35mm 카메라를 사무실에 몰래 들여와 책상에서 몰래 촬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보안 제한에도 불구하고 문서 사진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3월 사건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12개 이상의 35mm 필름 롤을 넘겼고, 4월 회의에서는 12개 이상의 필름 롤을 더 넘겼습니다.

이러한 제약에 대처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요원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CIA 5월에 다음 기회에 3세대 최신 소형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톨카체프는 촬영을 위해 문서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끝의 시작

1983년 여름과 초가을은 톨카체프 작전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그 1985년 상반기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날짜에 체포될 때까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요원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1983년 9월부터 11월까지 톨카체프와의 회담 시도는 다섯 차례나 실패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요원은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약속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번은 요원이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적절한 CIA 사건 담당자가 감시를 뚫고 만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톨카체프는 나중에 사소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불참한 세 번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건 담당관이 중단해야 했던 두 번의 회의에는 회의 장소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11월 중순, 톨카체프와 그의 케이스 담당자가 만났습니다. 요원은 편안해 보였고 다시 연락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16페이지 분량의 손글씨 메모를 제공했

지만 필름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서도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담당관은 톨카체프에게 보안 문제, 몇 가지 새로운 요구 사항, 설명서와 함께 숨겨진 새 미니 카메라 두 대, 조도계, 문서 서명 카드를 복제하려는 노력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질문, 향후 회의 일정 제안, 그가 지정한 종류의 금 보석 몇 개, 그가 요청한 소설 및 건축 서적 몇 권을 설명하는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 회의의 모든 물리적 징후는 에이전트가 문서를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보안 위협

그러나 이 회의에서 톨카체프가 작성한 메모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CIA 요원들은 지난 봄에 요원에게 심각한 보안 위협이 발생했다는 사실, 즉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사실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톨카체프는 198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정 소련 전투기 표적 인식 시스템에 대한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에 관한 대대적인 보안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톨카체프는 연구소의 보안 요원들이 이 주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지난달에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CIA에 넘겼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면 거의 확실하게 자신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이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다음 날 휴가를 신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SRAC 장치, 펜탁스 카메라, 디드롭 및 신호 사이트 지침서 등 모든 스파이 도구와 자신에게 전달된 책과 돈을 가지고 다차로 운전해 갔다고 합니다.^[4] 그는 다차에서 불에 탈 만한 것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는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길에 남은 불에 탄 금속 부품을 차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톨카체프는 자신이 입수한 독약을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상사의 사무실로 전화하는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사무실에 불러갈 때마다 먼저 독약을 혀 밑에 놓아두어 압수당하면 즉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문서 사진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감한 문서에 대한 서면 정보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카체프는 9월에 있을 CIA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4월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무산될 때마다 그는 몇 페이지를 추가했고, 그때마다 폭풍우를 극복하고 CIA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이 톨카체프는 11월 16일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으며, 당시에는 엄청난 공포를 겪은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스크바에서 본부로 보낸 CIA의 한 메시지는 4월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톨카체프가 계속 노래를 것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끝까지 계속 생산해내겠다는 결의를 가진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CIA 본부는 모스크바에 보낸 메시지에서 3월에 톨카체프가 제공한 소련 전투기 표적 인식 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6월까지 CIA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정보가 유출되었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는 알드리치 에임스(Aldrich Ames)의 반역이 전까지는 CIA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5]

그 후 몇 달 동안 CIA 톨카체프를 보호하는 동시에 작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최소한으로 개최하되, SRAC 기능을 다시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액을 전달해야 하는 물리적인 어려움과 거액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고려하여 톨카체프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금(에스크로 계좌의 연간 이자)을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탈출 계획을 준비하여 다음 회의에서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부는 톨카체프에게 정보 수집 활동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어떤 정보도

더 많은 문서를 집에 가져가서 촬영했습니다. CIA는 그에게 그날 사무실에서 읽은 민감한 문서에 대한 메모를 집에서 적는 것으로 대부분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형 CIA 카메라를 요원에게 전달하는 관행은 계속 유지하되,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4년 4월, 톨카체프는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만남에서 요원은 사건 담당관에게 자신이 받은 소형 카메라와 필름 한 롤을 모두 촬영한 필름, 그리고 39페이지 분량의 수기 노트(그 중 26페이지에는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소련 레이더 시스템의 설계도 몇 장도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스파이 카메라로 촬영한 96개의 프레임 중 몇 개를 제외한 모든 프레임의 화질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톨카체프는 새 스파이 카메라 두 대와 수정된 통신 계획서, 메모, 그가 요청한 약과 책, 그리고 10만 루블이 넘는 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번 탈출 계획을 수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톨카체프의 사기는 높아 보였습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상황이 평온해 보였고, 갑작스러운 보안 수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IA에 메모에서 과민하게 스파이 장비를 파괴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또한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새 미니 카메라 몇 대와 펜탁스 35mm 카메라의 재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부정적인 소식은 건강 문제였는데, '만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복막염이 악화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약을 요청했습니다. 톨카체프의 담당관은 톨카체프에 관한 한 수술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위험과 이익의 균형 맞추기

1984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사건의 생산성과 보안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 CIA 내부에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원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

니다. 그 결과 톨카체프에게 펜탁스 카메라를 재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너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는 1년에 두 번 이상 만날 수 있었지만, 그가 안전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톨카체프와의 또 다른 만남은 1984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90프레임이 모두 선명하게 나오는 두 대의 소형 카메라를 돌려주고 22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넘겼습니다. 그 요원에게는 새 소형 카메라 세 대와 메모, 각종 약품, 아들을 위한 건축가의 드로잉 잉크, 그리고 몇 가지 정보 요구 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톨카체프는 직장에서 모든 것이 정상이며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펜탁스를 달라고 주장했고, 너무 위험하다는 말에 그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고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톨카체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CIA 본부는 그에게 35mm 카메라를 추가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모스크바의 CIA 요원들은 동의했지만 그가 직접 카메라를 나갈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향후 회의에서 두 대 이상의 소형 카메라를 건네주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35mm 카메라를 더 구하려는 시도를 막기로 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톨카체프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습니다. 톨카체프는 1983년 12월 현재 누적된 급여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가 넘는 에스프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만 수십만 루블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의 루블 이자 지급액은 전년도 말의 누적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업무

1985년 1월, 톨카체프와의 또 다른 일상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소형 카메라 3대를 반납하고 정보 및 작전 정보가 담긴 16페이지 분량의 수기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담당관은 그에게 새 소형 카메라 5대와 정보 요구 사항, 새로운 통신 신호 사이트, 약 10만 루블, 그리고 그가 러시아어 책 3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톨카체프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담당관은 요원이 이전에 CIA에 전달했던 몇 가지 기술 노트도 돌려주었습니다.

톨카체프는 다시 사무실에서는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말했고, 즉시 펜탁스가 소포에 포함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동의하지 않지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은 좋아졌지만 치아는 여전히 그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회의는 6월에 개최하고 1년에 평균 3번의 회의를 계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톨카체프는 의약품, 서방 언론에 보도된 소련 지도자들의 공식 발언 녹취록, 아들을 위한 책, 앨범, 볼펜, 아들과 아들의 여자 친구를 위한 영어 자료(서면 및 카세트) 등 개인적인 요청 목록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톨카체프는 이 모든 요청을 처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에스크로 자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톨카체프는 현재 문서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통 자신의 사무실 건물에 인접한 연구소 단지 내 사무실 건물의 화장실로 문서를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빛이 더 잘 들어오고(창문이 더 크고)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통 다른 건물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들러 자신의 설명하기 위해 위장 정차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과정은 20~25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다.

1월에 톨카체프가 돌려받은 필름을 현상했을 때, 빛이 부족해서인지 읽을 수 없었는데, 그는 흐린 날에 촬영을 했다고 메모에 적었고, 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걱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촬영한 서류에 "1990년대 최전선 전투원들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톨카체프는 자신의 노트에 이 주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몇 가지 제공했습니다.

1월 회의에서 당시 작전이 손상되었음을 시사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톨카체프의 태도는 이전 회의의 태도와 일치했고, 서면 정보도 주제, 질, 양 측면에서 이전에 제공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사건 담당관은 KGB의 감시 습관이나 패턴에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톨카체프가 언제 유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회의 이후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재중 회의

1월 사진 촬영에 실패한 결과, 3월에 예정에 없던 톨카체프와의 회의를 열어 최전방 전투기에 관한 문서를 다시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OTS는 최근 소형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조도 조건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필름을 테스트했는데, 이 필름을 다음 회의에서 톨카체프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3월 초, 톨카체프의 사건 담당관은 미팅을 원한다는 시각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톨카체프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그는 오후 12시 15분에서 오후 12시 30분 사이에 자신의 아파트 창문 중 하나를 열어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것이 3월에 있었던 두 번째 만남의 가능성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던 트랜섬 창문을 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지만 톨카체프는 자신이 곤경에 처했음을 알리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대체 회의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톨카체프는 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예정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신호를 다시 시도하지 않고 6월로 예정된 다음 회의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해

6월 5일, 그 달의 첫 번째 만남이 예정된 날, 톨카체프는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

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그는 평소 자주 사용하던 아파트의 중간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관은

회의 전에 감시가 심해 회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대체 사건 담당자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체 회의 날짜인 6월 13일, 톨카체프의 만남 준비 신호가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관은 회의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감시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접근하면서 그가 발견한 유일한 특이한 점은 한 여성이 무전기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예정된 정확한 시간이 되자 인근 덤불에 숨어 있던 군 위장복을 입은 십여 명의 KGB 보안 요원들이 갑자기 사건 담당관을 덮쳤습니다. 고위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성 몇 명이 재빨리 나타나 압수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사건 담당관은 뺨에 묶여 루비얀카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톨카체프는 회의 장소에서도, 이후 교도소에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시 사건 담당관의 처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표준 KGB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제지당하고 철저한 수색을 받았지만 신체적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루비얀카에서 그는 스파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비디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톨카체프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던 소포가 하나씩 개봉되었고, KGB 심문관들의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KGB는 결국 미국 대사관에 그의 체포를 통보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에 구금된 사건 담당관은 오전 12시 20분에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관은 소형 은닉 카메라 5대, 톨카체프의 요청에 따라 톨카체프에게 돌려주려던 수기 자료 4장, 건축 서적 2권, 톨카체프의 아들을 위한 프랑스어와 독일어 연필 20개, 다량의 치주약, 톨카체프가 요청한 250페이지 분량의 서양 신문 및 잡지 기사가 들어 있는 책 은닉 장치, 수천 루블이 든 봉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봉된 쪽지에는 지난 회의에서 제공한 "매우 중요한 서면 정보"에 대해 에이전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가 촬영한 문서를 복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그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저조도 필름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여름에 촬영한 그의 사진이 훌륭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1980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가 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 문서 로그아웃 카드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CIA가 그의 아들과 여자 친구에게 영어 자료를 제공하는 꺼린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에는 동봉된 수천 루블의 지불금이 "1985년에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CIA 사건 담당관의 체포는 모스크바에서 크게 알려졌지만 톨카체프의 이름이나 직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사건 담당관과 그의 가족은 체포된 다음 주에 강제로 출국해야 했습니다. 9월이 되어서야 톨카체프는 이 정보 작전에 공모한 혐의로 "6월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타협의 이면

명백한 보도에 따르면, 불만을 품은 전직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리 하워드는 톨카체프를 KGB에 넘긴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워드는 1983년 초, 그해 여름 모스크바로 파견을 준비하던 중 톨카체프 작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CIA 요원으로서 첫 해외 파견이었지만, CIA에 합류하기 전 평화봉사단과 국제개발처에서 해외 근무를 한 '깨끗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톨카체프 작전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워드는 모스크바로 출국하기 전인 1983년 초 정기 보안 재조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일부 시인했지만, 보안 완전히 정직하게 대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1983년 4월에 그의 고용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고를 심하게 받아들인 하워드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동안 주기적으로 폭음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CIA 관리자들은 이 사실을 못했습니다. 그는 1983년 여름에 모스크바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CIA 국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괴롭힘 전화였고, 국장은 하워드가 자신의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궁극적으로 CIA 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징후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구소련 출신 탈북자 비탈리는

유르첸코는 미국 관리들에게 1984년 9월 전직 CIA 관리(하워드로 밝혀짐)가 오스트리아의 KGB와 접촉하여 CIA 작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6] 이 기록에 따르면 하워드는 1985년 4월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빈에서 KGB를 만나 비밀 작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7]

하워드가 톨카체프를 배신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이 1984년 9월 또는 1985년 4월 소련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KGB는 모든 반역 혐의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체포하기 전에 빈틈없는 사건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워드가 소련과의 첫 만남에서 톨카체프를 배신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KGB 수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워드는 요원의 정확한 이름과 직책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KGB가 처음에 톨카체프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워드는 톨카체프 사건에 대한 지식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워드는 첫 만남에서 소련 측이 자신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워드가 그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톨카체프의 시대는 끝났을 것입니다. 명백한 기록에 따르면, 알드리치 에임스도 1985년 톨카체프가 KGB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했을 때 그의 이름을 KGB에 넘겼다고 합니다. 에임스는 6월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민감한 CIA 사건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1985년 4월 소련에 기밀 정보를 처음 넘겼을 때 이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KGB의 높은 점수

톨카체프 사건을 다룬 1990년 2월 소련 신문 소비츠키야 로시야의 기사는 분명히 KGB 관리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CIA에 대한 마지못해 칭찬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IA는 톨카체프에게 교묘하게 정리된 회의 일정을 제공했습니다. CIA

강사들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미니어처 카메라에는 자세한 설명서와 조도계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 톨카체프와의 만남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조명이 어둡고 한적한 장소를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CIA 전문가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자.누구나 CIA의 속임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의 특정 창문 뒤에 불이 켜지면 이것이 스파이에게 보내는 암호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 . 랭글리는 요원에게 약이 필요하면 모든 것이 제공될 정도로 감동적인 보살핌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모든 지시에서 그들은 그의 건강을 점검하고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의 안녕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강조하기 위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종 회계

1979년 톨카체프가 생산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 구성된 국방부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고, 1981년 CIA에 부임한 후에도 이 자료를 계속 연구했던 한 고위 CIA 분석가는 톨카체프 생산물의 가치에 대해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톨카체프의 정보가 워낙 방대하고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1985년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경까지 태스크 포스가 그의 정보를 계속 활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행히도 톨카체프의 아내나 아들이 수감되거나 반역죄로 인해 장기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톨카체프는 자신의 CIA 활동으로부터 이들을 완전히 보호하여 어떤 타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했습니다. 적어도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렉 톨카체프는 현재 러시아의 저명한 건축가입니다. 아들과 아내가 체포에서 살아남았다면 아돌프 톨카체프는 소련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가족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는 목표를 달성한 것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각주

[1] 펜코프스키 사건의 기본 사실은 Jerrold L. Schecter와 Peter S. Deriabin의 <세계를

구한 스파이(뉴욕: 찰스 스크리브너의 아들들, 1992)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CIA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파일을 검토하고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 빅토르 벨렌코는 1976년 MiG-25를 몰고 일본으로 날아간 소련 조종사였습니다.

[3] 톨카체프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과학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보안 요원으로 부터 벨렌코가 얼마를 받는지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것은 톨카체프가 다차를 구입했다는 기록상 최초의 정보로, 아마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CIA에서 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구매는 그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며 자신만의 다차를 갖고 싶지 않다는 그의 이전 주장을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 사건 담당관을 만났을 때 그가 자랑했던 새 차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CIA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톨카체프는 자신의 소비 습관이 CIA의 역할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CIA의 노력의 결실을 즐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가 결국 그의 타협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5] 에임스는 1994년 3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소련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유르첸코는 1985년 8월에 탈북한 KGB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이후 1985년 11월에 소련으로 재망명하면서 그가 합법적인 탈북자였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드러난 모든 증거는 그가 합법적인 탈북자였다는 가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7] 하워드슨은 이후 망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2년 모스크바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배리 G. 로이드*은 CIA의 작전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팅 또는 암시

사실적 진술 및 해석을 하거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